

## 규모의 지리 측면에서 바라본 창조적 계급과 도시 창조성: 도시 창조성의 재구성과 도시 정책적 시사점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s of creative class and  
urban creativity in the multisclalar approach

김동완\*

본 논문은 최근 도시성장전략 또는 재생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창조성 논의가 지나치게 도시규모에 갇혀 있어 창조성의 실재를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도시의 창조성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드러나는 경향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창조성은 도시 외의 다른 규모에서 기인하는 요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대규모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외국의 경험들 속에서 드러나는 도시의 창조성은 도시규모에서 드러나는 지표들 외에 국가나 글로벌 규모 또는 근린규모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해당 사회의 도시적 맥락에서 접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도시규모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해해 규범화할 경우 정책적 혼선,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창조성을 다양한 규모에서 경험 연구한 논의들을 종합해 도시 창조성의 실재는 다양한 규모의 내적·외적 관계가 접합됨을 논증하고, 향후 창조적 도시를 향한 정책적 적용에 있어 다른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창조도시, 창조계급, 창조성, 대규모적 접근, 실재론

## 1. 서론

‘혁신(innovation)’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창조성(creativity)’이 대신하고 있다. 소위 ‘창조경제’(Howkins, 2001; Coy, 2000), ‘창조적 계급’(Florida, 2002; 2005a; 2005b), ‘창조도시’(Landry, 2000), ‘창조산업’(DCMS, 1998; Hartley 2005) 등 창조라는 수식어는 영미권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창조적 계급에 주목해야 할지, 지역의 창조적 장(field) 또는 제도 자산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이지만<sup>1)</sup> 그 모두가 창조경제의 도래와 창조성의 부상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창조경제에서 도시성장의 핵심이 창조성 확보에 있다는 논쟁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계획의 영역에서 전 세계 도시들이 ‘창조성’ 담론에 열광하고 있고 스스로가 창조성의 군도(群島)에 속하려는 모습은 혁신 담론의 전파과정을 상기해보는다면 그리 생경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조성 개념을 도입하는 분위기가 다. 정부고위관료나 각급 지방자치단체, 지방 언론 등에서 창조도시, 창조산업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2006년 해외연수단에서 창조도시를 테마로 답사방문을 한 이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창조도시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수립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선언이다. 지난 4월 2010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시 전체를 창의와 문화를 테마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술적 창의기반’, ‘도시의 문화환경’, ‘도시가치와 경쟁력’이 중심기조였다. 대전 시 역시 2007년 8월부터 ‘창조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다. 모두 열거하기 어렵지만 이외에도 국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창조도시 기획은 증가추세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제국(諸國)에서 창조성 개념이 발화

1) 계급론과 지역적 자산 또는 제도적 체계에 관한 논쟁은 스콧(Scott, 2006)을 참고.

한 이유는 진지하게 성찰해 볼 대목이다. 플로리다(Florida, 2002)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 사회에서 창조경제와 창조적 계급의 등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이 가져온 거대한 변환의 결과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첨단제조업까지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내어준 국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진지한 변화의 모색이다. 즉, ‘창조’라는 단어가 풍기는 낭만적 이미지 너머에는 ‘생존(生存)’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놓여 있다. 따라서 ‘생존’의 구조를 해명하지 않은 채 ‘창조성’만 논의하는 것은 각 도시 나름의 생리를 간과하는 것과 같다. 아울러 성공한 창조도시에서 도출된 창조의 덕목은 단순히 도시라는 범주로는 볼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를테면 영국의 창조도시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지목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교육체계의 문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무관할 수 없는 산업육성의 문제는 도시나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 규모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그룹의 상호작용과 연계, 개인적 수준의 느슨한 네트워크는 도시 내의 특정 근린지역이 가지는 보다 작은 규모의 복잡성을 띤다. 요컨대 창조성이 유행하게 된 생존의 구조나 기회의 구조 모두에 있어 창조성의 문제는 다규모적(multi-scalar)이다.<sup>2)</sup>

도시의 창조성을 이렇게 본다면, 어떤 한 도시의 창조성 결정요인이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의문스럽다. 문제 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창조성의 고공비행이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보니,<sup>3)</sup> 지나치게 규범적인 도덕률이 되고 말았다. “창조적이거나, 죽거나(Be creative-or die)”라는 문구는 *Salon*의 필자 크리스토퍼 드레허(Christopher Dreher)가 현재 도시에 강제되는 힘이

2) 지리학에서 다규모적 접근에 관해서는 박배균(2005)의 글을 참조할 것.

3) 최근 창조적 공동체에 관한 The Memphis Manifesto가 제창되었다. 잘 알려진 여러 학자들과 도시의 대표들이 정상회의를 하고 발표한 선언문으로 <http://www.memphismanifesto.com>를 참조할 것.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Peck, 2005). 애초에 플로리다가 창조적 계급과 창조성을 다양성과 히피적 해방에 비유했을 때(Florida, 2002) 수많은 좌파 이론가들이 열광했지만, 정작 정책적 집행의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도시 전략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 있었다(Gibson & Klocker, 2005). 과거 정부-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 대안적 민주주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통치구조로 각광받던 협치(協治, governance)가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규준(規準)이 되어 ‘good governance’라는 이름을 얻어갔던 전철을 밟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역사의 특수한 맥락을 보지 않은 채 규범적·이상적 정책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소멸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40여 년 전 제이콥스(Jacobs, 1961)가 경계한 바 있다. 더욱이 도시규모에서 창조성의 지원구조로 손꼽히는 것이 다양성이고 제이콥스가 도시 다양성을 부(富)의 원천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규범적 접근으로 도시 창조성을 얻어보겠다는 계획은 이율배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가 가지는 창조성이 선형적인 규준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마치 혁신의 체계가 각 국가, 각 도시마다 역사적 경로를 따라 진화했듯, 창조성 또한 역사가 특수한 진화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는 산업구조상의 특징, 그 사회 ‘창조적 계급’의 고유한 특성, 제도적 지원장치와 ‘창조적 풍토(milieu)’(Landry, 2000)의 진화패턴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도시의 창조성을 조건 짓는 다규모적인 결정과정이 작동한다. 글로벌 생산체계의 작동이 국지화되는 공간적 패턴이 있고, 국가 도시위계상에서 가지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위계 또한 작동한다. 국가의 교육체계가 층층이 놓여 있고 각급 정부가 구축해온 사회간접자본도 상이하다. 더군다나 창조적 재능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더 작은 규모의 복잡한 창발과정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나치게 규범화된 창조성 논의를 이상의 다규모적 측면에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른 바 “분석틀의 속 비우기(emptying analytical content)”(Wang, 2004: 12)를 통해 영미권의 창조성 논의

에서 필수적(혹은 내적) 관계와 우연적(혹은 외적)관계로 분해하는 것이다.<sup>4)</sup>

## 2. ‘창조경제’와 도시 창조성 논의의 전개와 드러나는 문제점들

‘창조경제’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코이(Coy, 2000)가 《비즈니스위크》지에 “The Creative Economy”라는 글을 실으면서부터다. 그는 어떤 기업이 다가오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글의 부제로 제시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 아이디어를 최상의 가치로 두는 기업을 꼽는다. 아이디어라는 생산요소를 활용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가 ‘창조경제’라 주장하며 이제 산업경제는 창조경제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리라 전망한다. 그는 창조경제의 등장으로 아이디어가 큰 경제과급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전통적인 공룡기업들은 그 지위를 잃을 것이라 주장한다.

코이(Coy, 2000)가 창조경제를 선언한 지 2년이 지나고 호킨스(Howkins, 2001)는 코이의 기사와 같은 제목의 *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을 내놓는다. 코이가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 예측하고 있다면, 호킨스는 보다 직접적으로 창조경제가 지적재산권에 관계된 법률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라 보았다. 그는 특허, 카피라이트, 등록상표, 디자인 등에 관계된 지적재산권을 창조경제의 핵심 제도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해야 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 랜드리(Landry, 2000)는 몇몇 도시의 성공사례와 도시계획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 *The Creative City*라는 저술을

4) 내적·외적 관계에 관해서는 세이어(Sayer, 1992)를 참조할 것.

발표한다. 랜드리는 도시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 풍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시켜 가는가에 대한, 실천적 정책도구로서 창조도시 정책론을 제출한다.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약한 그는 유럽의 제조업 쇠퇴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고 종래의 복지 국가 시스템에 위기가 닥치는 상황을 목격한다. 산업공동화와 재정위기에서 국가의 지원에 독립적으로 도시 발전을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적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1985년부터 EU가 개시한 유럽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이 가지는 창조적인 힘이 사회의 잠재력을 끌어낸 도시들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미국의 도시운동가 제이콥스(Jane Jacobs)의 영향을 받아 문화예술과 산업경제를 연결하는 매개로 창조성을 이해한다. 공상이나 상상이라기보다 실천적인 대상으로, 더 직접적으로는 지식과 혁신을 연결하는 능동적인 대상으로 평가한다. 랜드리와 창조도시는 다소 산만한 구성의 책이지만 이후에 소개할 플로리다의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와 함께 큰 흥행을 기록하면서 도시문화, 도시산업 분야에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기에 이른다.

랜드리가 EU의 도시문화전략을 평가하면서 창조도시론을 도출했다면 플로리다(Florida, 2002)는 호킨스의 창조경제 논의와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고안한다. 창조성에 대한 투자(연구원에 의한 R&D 지출), 창조적 생산의 증가(특허동향), 창조적 노동인구의 증가(과학자, 공학자, 보헤미안) 등의 지표를 근거로 미국의 창조경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창조경제하에서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창조적 계급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창조성은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단지 현대적 고안물이 아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창조경제의 등장은 전체 산업의 조직과 성장 동력을 창조적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창조적 인재들로 돌려놓았다고 본다. 플로리다가 말하는 창조적 계급은 스스로의 창조성을 경제적 부가가

치로 전환시키는 능력의 보유자들이다. 여기에는 많은 수의 지식노동자, 기호분석가, 전문직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 플로리다의 — 최소한 그의 이론적·개념적 범주에서 볼 때 — 창조적 계급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창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전문가, 기획자, 예술가 등 직업분류로 접근한다.

플로리다(Florida, 2005b)는 창조경제에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3Ts를 꼽는다.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적 분위기(Tolerance)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플로리다가 구성한 도시의 창조성 지수에 핵심적인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으로 기술과 인재를 강조했으나(각각 Solow, 1969; Lucas, 1986) 창조적 시대에는 3Ts 모두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관용적 사회 풍토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Florida, 2005b: 37). 일견 그가 창조적 계급론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의 다양성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강조해왔으니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인재와 함께 관용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선진 제국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속속 창조경제로 편입되는 와중에 창조적 인재를 두고 벌어지는 전 지구적 경쟁에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관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다(ibid: 8).

창조성 논의의 마지막 토픽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다. 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등장과 때를 같이한다. 1997년 집권한 블레어 내각은 ‘Creative Britain’이라는 기치를 걸고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를 창설한다. 1998년 DCMS는 창조산업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개인의 창조성과 기술, 재능 등을 활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을 창조산업이라 정의했다. 케브스(caves, 2000)는 영국정부의 이러한 정의가 다소 임의적이라 지적하면서 “창조산업은 문화, 예술, 여가 가치를 포함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서적 및 잡지출판, 예술, 공연예술, 음악, 영화, TV, 패

선, 게임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7가지 창조산업 고유의 특징을 제시했다.<sup>5)</sup>

창조성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논의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지만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창조도시론은 사회적 잠재력과 도시체계 전체의 창조성에, 창조적 계급론은 실제 창조의 주체이자 아이디어의 원천인 창조적 인재들에, 창조산업론은 창조성이 투입되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각각 나머지 두 가지 논의를 흡

- 
- 5) 케브스가 제시한 7가지 창조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Caves, 2000: 2~10). 첫째, 창조산업은 수요가 불확실하다. 이를 두고 미국 할리우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은 “수요 불가지성(不可知性)(*nobody knows property*)”이라 부른다. 둘째, 창조적 노동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제품 자체의 예술성을 중요시한다. 이는 창조적 노동자를 기능공과 구분하는 속성으로 창조적 작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유행이나 선호를 나타낸다. 케브스는 이 속성을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의 특성이라 불렀다. 셋째, 몇몇 창조적 제품 생산에는 매우 다양한 숙련이 필요하다. 미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화가 한 명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창조적 제품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의 취향과 선호를 드러내야 한다. 창조산업의 생산조직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움직여가는 건 이런 특성 탓이다. 가히 “혼합적 작업조직(*motley crew*)” 특성을 가진다고 할 만하다. 넷째, 창조산업의 상품들은 수직적·수평적으로 차별적이다. 만약 비슷한 종류의 영화라면 더 나은 상품 하나만 소비한다는 것이 수직적 차별화이고, 동종의 제품이라도 전혀 다른 취향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들 간에는 별개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수평적 차별화이다. 수평적·수직적 차별화를 고려한다면 창조산업의 제품 차별성 또는 다양성은 무한하다. 이를 “무한한 다양성(*infinite variety*)”의 속성이라 한다. 다섯째, 노동자의 기술이나 작업의 질을 창조산업의 투입요소로 보았을 때, 기술은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예술가의 능력에 넘기 힘든 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자들은 이에 시나리오 작가를 A급/B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 창조산업의 “A급/B급(*A list/ B list*)” 속성이다. 여섯째, 창조산업에서 시간조정은 필수적이다. 창조산업은 매우 복잡한 팀을 포함한다. 앞서 본 혼합적 제작조직 특성 탓이다. 때문에 각각의 활동에 대한 매우 정교한 시간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제품을 통한 신속한 수익실현이라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실현의 신속성(*time flies*)”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산업의 제품은 영속(永續)적이다. 심포니의 연주는 콘서트홀에서 연주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그 기록물은 영구히 보존된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영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적 재산권과 그 사용료에 관한 영구성이고 나머지는 공공자산으로서 남는 예술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영원한 예술(*ars longa*)”의 특성이라 한다(강조는 원문을 따름).



수해 융합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도적 환경, 혁신적 기술, 기업은 그간 도시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손꼽히던 요인이지만 아닌가. 눈에 띄는 건 이 세 논의의 주창자들이 각각 도시 정부를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활동을 벌이는 그룹이 ‘Richard Creativity Group’이라는 점이다. 영미의 여러 도시 정부가 플로리다 그룹으로 몰려 들고 있다(Peck, 2005; Shea, 2004; Malanga, 2004). 창조경제하 핵심산업들의 42.8%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을 근거지로 삼은 탓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창조성 지수(Creative Index)를 계량해 도시의 순위를 매기는 데 있다.<sup>6)</sup> 창조도시론이 다분히 귀납적으로 도출된 창조도시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면 플로리다 그룹은 그 도시의 창조성을 하위 범주별로 지수화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창조산업 연구자들도 도시의 창조적 환경과 창조적 인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형편이고 보면(Saris & Brouwer, 2005; Hartely, 2005) 창조적 계급이 창조경제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구조가 무엇인지 간명하게 지수화하는 플로리다의 방법론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플로리다 역시 오늘날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창조경제라는 호킨스의 전제에 동의하고 있다(Florida, 2002: 77). 그는 창조경제에서 창조성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시키는 일군의 노동자들을 창조적 계급으로 보고, ‘의미 있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ibid: 113 ~114). 전술한 바 플로리다는 창조경제에서 승리하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위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보았다. 그는 각각에 대해 기술은 하이테크 지수와 혁신 지수로, 인재는 인재 지수와 창조적 계급 빈도로, 관용은 게이 지수(gay index)와 보헤미안 지수(bohemian index), 도가니 지수(melting-pot index)로 지표화하고 이를 종합해 지역의 창조성 지수를 산출했다. 이 창조성 지수와 지역의

6) 미국의 창조산업 통계에 대해서는 호킨스(Howkins, 2001: 116), 창조성 지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플로리다(Florida, 2002)를 각각 참고할 것.

인구성장, 고용증가와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중국에는 창조성이 도시경제발전의 엔진이라 주장했다. 이 중 기술과 인재는 창조적 계급의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관용은 창조적 계급이 그 도시로 모여드는데 핵심적인 자산이다. 요컨대 관용성을 갖춘 도시에 창조적 계급이 모여들고 그들을 따라 기업이 입지한다는 매우 명료한 논리를 제시한다.

그 명료함에 매료되어 싱가포르에서 런던, 더블린, 오uckland, 댄비스, 암스테르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의 지도자들은 창조성이라는 새로운 구세주에 관해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도시를 텍사스 오스틴이나 플로리다의 템파베이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Peck, 2005: 740; Shea, 2004). 이른바 ‘(창조적) 인재를 놓고 벌이는 전쟁(war for talent)’에 승부를 걸고 창조경제에서 절실한—창조적 인재들이 선호하는—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Florida, 2003). 그런데 과연 그들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프리드먼(Friedman, 1999)은 세계화 이후 글로벌과 로컬의 갈등을 렉스와 올리브나무에 빗대어 설명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표준화가 올리브 나무를 죽이는 경우, 즉 고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상실할 때의 위험을 지적한다. 올리브의 죽음, 이는 펙(Peck, 2005)이 플로리다의 빛나는 성공을 보고 지적한 위험성과 일치한다. 플로리다의 창조적 계급론은 도시 개발전략의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게이나 보헤미안과 같이 이단(異端)의 결사체를 동원해 이질적인 아이디어, 이질적인 행위자, 이질적인 절차를 혼합시키려 했다. 이를 통해 창조성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시장에 편입시키고, 생각의 방식을 정형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창조적 계급을 도시로 유인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창조적 계급에게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재구조화해야만 했다.<sup>7)</sup> 도시경제에 구원을 가져올 새로운 복음이 창조적 계급에 있었던 것이다.

7) 바리스(2003: 42), 펙(Peck, 2005: 742)에서 재인용.

규범화된 창조도시, 창조계급의 덕목들이 문제가 되는 건 가장 발 빠르고 활발하게 도입했던 영미권 내부에서였다. 오클리(Oakley, 2004)는 플로리다의 창조적 계급론을 적극 수용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DCMS를 통해 추진한 창조산업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있다. “창조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 경제발전전략을 둘러싼 수많은 레토릭들이 비판을 은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ibid: 73). 비록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방침이 산업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 하지만 창조도시론과 창조적 계급론이 제시하는 정책적 처방들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의문스런 데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3. 도시 창조성 논의의 ‘속 비우기’: 다규모적(multi-scalar) 접근

그렇다면 이미 여러 형태의 정책적 도구로 구체화되고 있는 도시 창조성을 ‘속 비우기’ 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창조도시, 창조산업, 창조계급 개념을 일정한 틀에서 함께 조망할길 제안한다. 산업, 계급, 도시는 자본주의 분석의 전형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들이 새로운 노동의 공간적 분업 질서에서 탈공업화를 강제받게 되자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아이디어 또는 창조성에 주목했다. 선후 관계로 보자면 랜드리나 플로리다와 같은 학자들이 제안한 전략이겠으나 그것을 채택하고 추진한 주체는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세계도시의 경험을 추상화한 개념이다 보니 2차위 계층의 도시들은 최상위 계층의 도시들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 좇아갈 수밖에 없었고 저마다 지구적 문화경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했다(Flew, 2005). 하지만 이미 그 실체를 쫓아가는 방식이다 보니 모든 도시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모호한 과정이 반복된다. 펙(Peck,

2005)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전략은 해당 도시에 공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 및 부동산 자본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sup>8)</sup>

따라서 도시 창조성 분석들의 ‘속 비우기’가 필요하고 그 방식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창조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마치 플로리다가 모든 인간은 창조적이라 선언하고 모든 산업에서 창조적인 직업군을 찾아나가는 방식과 같다(Florida, 2005b: 34). 진화주의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로의존성과 기술궤적 접근도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이다. 다시 말해 규범적 창조성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창조성을 진화의 결과로 이해하고 천착하는 역사주의적 접근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조정한다. 속을 비우되 맥락이존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을 가려내는 엄밀함이 필요하다.

세이어(Sayer, 1992: 136)는 연관관계를 구분하는 데 외적 또는 우연적 관계(contingent relation)와 내적 또는 필연적 관계(necessary rel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과 흙더미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외적인 것이다. 반대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정의가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내적인 것 또는 필연적인 것이다. 대단히 극단적인 두 사례지만, 올바른 추상화는 기본적으로 내적관계와 외적관계를 구분해 내적관계를 구조로 세워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적관계는 맥락의 존적인 환경으로 분리해내야 한다. 우리의 논의에서 도시와 창조적 인재, 창조적 산업, 창조적 환경의 관계를 재고해볼 때다. 창조적 인재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이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적 교육에 대한 투자와 또한 제이콥스의 시각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인구가 가지는 복잡계적 발현(emergence) 역시 직접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할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환경적

8) 특정 장소에 국지적으로 의존하는 자본과 지방정부 정책에 관한 논의는 콕스와 마이어(Cox and Mair, 1988) 참조.

요소가 도시의 창조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설명과 피설명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로 드러난다. 문제는 이런 우연적·외적 관계가 가장 주요한 정책 범주로 이해된다는 데 있다. 결국 ‘속 비우기’란 가장 손쉽게 정책대상화할 수 있는 이 외적관계를 구분하고 각 국가, 각 도시에서 이런 외적관계가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하며, 각각을—도시 창조성이라는 모호한 관계 틀에서 떼어내어—서로 다른 내적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공간 연구분야에서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도시규모에 국한되어 있는 창조성의 다규모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애초에 규모(scale) 개념은 국민국가와 그 영토가 사회과학적 인식의 지배적인 공간범주 위치를 잃으면서 부상했다. 규모 논의의 시작은 테일러(Taylor, 1982)이다. 그는 정치학 또는 정치지리학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규정할 때 지나치게 국가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 연구의 세 가지 규모를 주목한다. 그 첫째는 세계 경제로서 실제의 규모,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의 규모로서 국가와 민족, 마지막은 경험의 규모로서 도시다. 그는 국민국가의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이를 재구성할 틀로 규모의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테일러의 이 제안이 최근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규모의 정치’의 시초다. 테일러의 논의를 이어 스미스(Smith, 1984)는 도시, 지역, 국가, 글로벌의 네 가지 규모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 규모 범주로 설정했다. 하지만 테일러(Taylor, 1982)와 스미스(Smith, 1984)에서 규모의 범주는 최근 논의보다 다소 고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규모를 담론적·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건 이런 문제의식에서다. 호윗(Howitt, 1993)은 규모 범주를 소여(所興)된 존재론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중첩해 배태된 위계로 규모를 이해했던 기존의 방식에 문제제기 했다. 조나스(Jonas, 1994)는 규모의 한 요소로 사회적 관계를 제기했다. 그는 매시(Massey, 1992)의 지적을 받아 안고 공간적인 것의 정치적 차원이 규모를 개념화하는 데 핵심적 이슈라고 보았다. 세계화와 지방성(locality)의 긴장 관계는 권력관계와 정체성의 동시성과 복잡성을 다루는 데 실패한 연구

분석들의 산물일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간성의 규모 정치학(scale politics of spatiality)’에 관한 정교한 논의를 제시했고 이는 규모와 권력의 관계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1997년에 이르러 딜레이니와 라이트너(Delaney and Leitner, 1997: 93)는 “규모는 경계를 가지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중첩하며 만들어지는 위계”라고 정의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정의로서 공간과 권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모가 애초에 존재하는 것인지, 왜 중첩되어 위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규모에 관한 일련의 논의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었다. 규모 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자면 국가규모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의 변형을 이해하는 데 적실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익숙한 표현인 지리적 ‘수준(level)’을 이용해 재해석해보자. 국민국가 시절에 국가 수준의 문제 설정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 세계, 근린 등 다른 ‘수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고 그 수준들 간의 상황적 결합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시기, 특정 사건에 맞춰 그 현상을 지배하는 규모가 정형화되지 않는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들이 결합해 새로운 규모를 창출한다. 일례로 최근 진행 중인 메콩 삼각주 개발의 경우 그에 인접한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초국가적 수준의 조직까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메콩 삼각주 개발의 거버넌스는 어떤 수준에서 해석하고 처방해야 할 문제인가. 단지 이를 다수준 거버넌스(multi level governance)라고 표현했을 때는 각 행위자들이 피하고 있는 수준 간 위계화 또는 서열 짓기 전략을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즉, 규모의 문제는 인식의 틀이고, 전략의 문제인 동시에 과정의 문제인 셈이다.

다소 장황하게 규모 논의를 정리한 이유는 창조성 논의가 이른바 ‘지방화의 덩(local trap)’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퍼셀과 브라운

(Purcell & Brown, 2005)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은 생태학 연구나 정책적 분야에서 글로벌 또는 국가 규모에 대해 도시 이하의 국지적 규모를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기는 상황을 애그뉴(Agnew, 1994)가 말했던 ‘영토의 덫(territorial trap)’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화 이후 지역 개발의 측면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방식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과 기대가 정치적으로 국지적인 규모를 절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생태학이나 환경학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용숙(2006)은 클러스터론과 지역개발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론(GPN: Global Production Network)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클러스터론이 지방화의 덫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창조성 논의 또한 예외가 아니다. 편의상 글로벌, 국가, 도시, 근린 등 규모를 나타내는 익숙한 범주들이 창조성을 구성해내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 정부가 빠져 있는 덫을 반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창조성과 내적관계를 가지는 다른 규모의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왕의 창조성 논의가 어떤 측면에서 덫에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시작은 국가규모에서다. 기본적으로 생존의 구조가 창조경제를 요구한다 해도 그 내용이 국가규모에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의 비디오 게임 산업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Izushi & Aoyama, 2006) 창조경제가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경제에서도 그간 산업화 경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 국가적 차이는 또 다른 면에서도 중요하다. 기왕에 개방적인 사회였고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정점에서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 창조적 계급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적실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해도, 인재를 ‘유인’하는 것이 그리 익숙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 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가 엘리트를 육성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온 국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모자람을 안타까워하면서 창조적 계급 유인에 고심해야 할 것인가. 비단 동아

시아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영국의 창조도시 정책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에번스 등(Evans et al., 2006)은 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 토론토,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6개 도시를 사례로 해 도시 창조성 전략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공공교육체계의 중요성이다. 공공교육에서 창조성 교육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창조적 계급의 특성 역시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플로리다(Florida, 2002)가 창조적 계급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그의 분석은 통계상 직업분류에 기초하고 있다. 직업분류상 창조적 계급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 특히 플로리다가 ‘창조적 계급의 지리’, ‘보헤미아의 경제지리’, ‘기술과 관용성’에 대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표본으로 삼은 건 모두 미국의 50여 개 대도시이다(Florida, 2005a). 결국 창조적 계급의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모두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그 결과를 창조적 계급의 지리라는 제하(題下)에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창조적 계급론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각 국가가 처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범적으로 거론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의 정책은 물론 기왕에 국가가 지녀온 제도적 배열과 경로의 특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다수다(Christopherson, 2002; Gertler, 1997; Rantisi et al.; Wang, 2004; Izushi & Aoyama, 2006; Fainstein, 2005: 16).

국가규모와 연관된 또 하나의 논쟁이 있다. 창조산업 유치가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도시의 과업이 될 수 있는가이다. 먼저 플로리다의 논의로 돌아가서 그가 강조한 3T를 생각해보자. 기술과 인재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기술, 모든 전문적 재능을 염두에 둔 접근은 아니다. 달리 말해 특정 산업에 연관된 기술과 지식을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탈공업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제조업 분야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잠식당한 영미권의 선진 제국에서 창조성과 연관시켜 접근했던 산업은 전술한 창조산업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하나는 동일한 산업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 또는 그 도시가 지니는 산업의 이력에 따라 필요



한 지식의 구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혁신체계 또는 도시 혁신체계의 제도적 배열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즈시와 아오야마(Izushi & Aoyama, 2006)는 일본, 미국, 영국의 게임 산업을 제도주의적·진화론적 틀에서 분석해 같은 산업이지만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연계를 맺고 각각 다른 종류의 지식을 교환한다고 지적한다. 프로젝트 중심의 창조산업 특성상 다른 산업부문과 지식을 교류하게 되는데 그 때 중심으로 이전하는 지식의 종류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미국의 경우 컴퓨터게임 산업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으로 기술 및 지식이 이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혁신체계상 특정 산업부문의 경로가 어떠한지 국제적 분업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는지에 따라 그 특징이 육성되어 온 탓이다. 왕(Wang, 2004)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창조산업 정책 집행 과정을 분석하면서 중국본토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창조산업 육성에 턱 없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소규모 기업들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거기서 나오는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 창조산업은 온전히 부적합하지도 않지만 그저 희망적이지만도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중요한 정책적 레토릭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다(Wang, 2004).

두 번째는 글로벌 규모에서 작동하는 창조성의 원천이 있다. 그 논거로 앞서 언급한 GPN론을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책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클러스터론은 이미 영미학계에서는 큰 비판의 장벽에 부딪혔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클러스터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국지적 규모(local scale)에 갇혀있다는 것이다(이용숙, 2006). 클러스터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설정하는 지나친 로컬리즘(localism)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Lovering, 1999; Markusen, 1999). 이러한 지나친 로컬리즘으로 기존의 클러스터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발전에서 지역의 내생적 조건들과 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채, 국가 및 다국적 기업의 역할 등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

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MacKinnon, Cumbers & Chapman, 2002).<sup>9)</sup> 그러나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통합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클러스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입지에 있는 여러 곳의 클러스터에 진출하고 있다(이용숙, 앞의 글).

우리는 여기서 도시 창조성 논의의 허점을 동일한 논리로 지적할 수 있다. 도시 창조성 논의에서는 GPN론 등에서 언급하는 글로벌 규모의 투자와—자본은 물론 노동의—움직임에 대해 피상적으로 전제할 뿐 구체적인 관계를 보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움직임을 도시 내로 유인하는 걸로 추측되는<sup>10)</sup> 물리적 환경과 분위기를 묘사하고만 있다. 결국 글로벌 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이—R&D 시설을 포함해—투자하고 입지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창조적 인재가 창조적 기업을 불러들인다”는 교의만 제시할 뿐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GPN론이 클러스터론에 대해 가했던 비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시 창조성 논의들은 창조계급, 창조도시의 형성을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새로운 도시개발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 도시가 어떻게 통합되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쇠퇴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시규모 또는 그보다 작은 근린규모에 대한 접근, 특히 정책적 접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상 창조계급의 유인, 창조도시에 걸맞은 건조 환경의 구축, 느슨한 네트워크가 원활히 일어나는 분위기 등 대부분의 도시 창조성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천재의 창조적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가지는 창조적

9) 이용숙(200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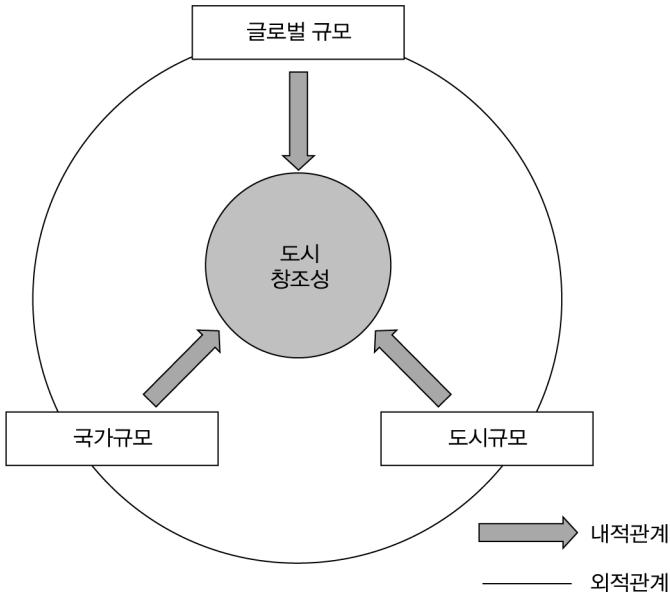
10)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창조성 연구는 상관 분석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들과 통계적으로—전적으로 외적이고 우연적인—유의미하게 여겨지는 창조성의 하부구조를 소개할 뿐, 글로벌 규모에서 기업이나 인재의 이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역량을 말할 때는 대개 도시의 다양성을 그 핵심으로 지목한다(Jacobs, 1961; Thomas & Darnton, 2006; Ottaviano & Peri, 2006; Florida & Gates, 2003). 도시의 다양성은 도시가 창조의 원천이 되는, 그리고 창조성 논의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플로리다의 3T 또는 랜드리의 창조적 환경은 특정 도시에서 창조적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요한 토대를 말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창조적 행위, 창조성과 도시의 다양성이 내적관계에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정작 도시의 다양성이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이에 관한 부언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더하겠다.

요컨대 도시의 창조성은 비단 도시규모만이 아니라 국가규모, 글로벌 규모 각각의 변수들과 내적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내적관계로 통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적·우연적 관계다. 그야말로 각 도시가 처한 맥락에 의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도시 창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의 경험을 규범화해 받아들이는 건 내적/외적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즉, 각각의 내적관계는 다른 규모에서는 우연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지역의 우연적이고 맥락의존적인 내용까지 규범화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혹은 정책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피상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창조적 계급이 끌릴만한 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은 도시재생전략이다(McCann, 2007: 195; Jones & Wilks-Heeg, 2004: 357; Miles & Paddison, 2005; Peck, 2005). 창조적 계급이 선호하는 장소적 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플로리다가 지적한 그 질이 무형의 것이지만, 막상 정책집행과정에서는 물질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sup>11)</sup> 이 도시재생전략이 가지는 정책상 목표는 간명하다. 창조적 계급

11) 여러 논자가 창조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자주 인용하는 미시간의 쿨시티 프로그램의 경우 2006년 워크숍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밝히고 있다 (Michigan, 2006).

<그림 1> 도시 창조성의 내적관계와 외적관계



이 선호할 만한 도시경관 조성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재개발을 통한 재생전략은 기존 도시의 근린규모, 가로규모의 공간조직을 파괴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플로리다 스스로도 빈번히 인용하는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가장 경계하던 도시계획의 구체적 형태이다. 어떤 도시에서 우연적으로 결합한 여러 규모의 변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해서 다른 도시

- 도시인구 증가
  - 주 내 모든 기관들 간 새로운 협력의 수준 달성
  - 미시간을 ‘쿨시티’의 혁신자로 자리매김
  - 쿨시티를 통해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구현
  -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서 도시 개척자와 젊은 지식노동자 유인
- 그러나 실제로 시험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계획은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가로상대 개선, 토지수용, 재생과 신규건축, 건축과 연계된 파괴, 녹지·공원·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휴양시설 등 물리적 재생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물며 도시의 자연발생적인 창조성의 공간구조를 인위적으로 재개발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전망일 수밖에 없으며,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 도시의 토지이용의 다양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는 이 다양성이다.

제이콥스는 도시의 다양성이 혁신과 창조에 기여하는 바를 역설했다 (Jacobs, 1961). 이는 이른바 ‘제이콥스 외부효과(Jacobs externalities)’라 불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업가 정신, 집적경제는 물론 개인의 창조성을 넘어서는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제이콥스(Jacobs, 1961)는 도시 다양성 확보를 위한 네 가지 필수요소를 제기한다. 도심 내 용도의 다양성, 짧은 블록을 통한 통행기회 제공, 통시적(通時的)으로 지어진 건물 군(群), 도심 내 일정 수 이상의 인구군집이 그 내용이다. 제이콥스는 “도시는 예술작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녀는 도시에 속한 개개의 요소보다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혼합(mixture)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그녀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미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전략은 부적절하다. 도시의 중요한 시각적 경관이 한두 개의 웅장한 건물이나 깨끗한 도로, 거대한 광장이나 쇼핑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조직해온 공간형태<sup>12)</sup>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의 창조성이 도시 정책으로 구현된 결과가 제이콥스의 도시 창조성, 도시 다양성 파괴로 이어질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창조적 계급론에 의한, 나아가 도시 창조성 논의에 기반한 도시개발전략이 봉착했던 최대의 난제다. 요컨대 최초의 창조도시 모델들을 제외하더라도 창조도시, 창조산업을 위한 도시 정부의 정책과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을 위한 레토릭이거나, 도시규모의 뒷에 걸

12) 본(Bourne, 1982)은 도시 형태를 거시적 형태(macro form)와 내부형태(internal form)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도시규모, 지리적 형태, 도시 전체의 물리적 경관, 교통망으로 구성되고 후자는 밀도, 균질성, 집중성, 접촉용이성, 방향성, 적합성, 대체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구성해온 공간적인 패턴 또는 배열이 공간형태이다.

려 있다는 평가가 타당해 보인다.

#### 4. 결론

지난 4월 15일 서울시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007년부터 창조산업을 통한 서울시가 드디어 전면적인 전략 선언을 한 셈이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런던, 게이즈헤드, 빌바오, 홍콩, 동경 등 잘 알려진 창조도시 전략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답보상태에 놓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컬처노믹스’에 기반한 창의문화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비판하고 있듯이 대부분 대규모 건조물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느 해외 도시의 창조도시 전략이 그러하듯 말이다. 물론 예전의 ‘혁신도시’, ‘문화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창조도시’ 역시 단순한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그 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종합적 접근은 한층 진일보한 것일 수 있지만, 창조성을 단순히 도시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인력양성의 측면에서만 봐도 단순히 관련 산업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만을 제시할 뿐 총체적인 창의적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문화산업 또는 창조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검토와 이를 활용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 창조적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해외의 어느 연구에서건 중요한 대목은 창조적 인재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창조적 인재는 그 개념상 특정 산업분류 종사자로 볼 수 없고 직업 분류상 창조적 직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하는 산업분류 통계로는 도시 창조적 역량의 통계적 특성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동일한 직업분류로 구분되는 그룹이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맥락의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세세한 질적 연구 없이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연구는 구문모(2005), 김학희(2007), 황은정(2007) 정도가 전부이고 그중에서도 직업에 따른 분류기준이나 창조적 인재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황은정(2007)이 유일하다.

결국 지금 진행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조도시 전략은 창조성에 대한 프레임의 부재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적 계급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여러 규모의 내적관계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그간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적 접근은 협소한 도시 개발의 틀 안에 갇혀 있어 그간의 성과들을 접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문화연대의 성명서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도시의 문화생태계가 가지는 역사적 경로와 맥락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도시의 역량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규모적인 접근방식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창조성의 담지자들이 가지는 특성과 전망에 관한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Abstract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s of creative class and  
urban creativity in the multiscalar approach

Kim, Dong-Wan

On the basis of a multiscalar view,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rban creativity can be constituted out of factors operating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icular, it aims to introduce the approach of critical realism into the analytic frame of the urban creativity. Up to now, since most of the studies about urban creativity have focused on the urban or neighbourhood scale, some crucial mechanism originating from global, national scale. The creative capacity of one city, however, must be understood as a contingent produc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various scales. Although the factors of one scale may have the internal/necessary relation, those from different scales have the external/contingent relation. The norms of urban creativity, thus, must be considered as products of contingent relations between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this paper, I conclude that policy makers need to discern tasks having internal relation with the urban creativity from many contingent foreign experiences.

Keywords: urban creativity, creative class, critical realism, multi scalar process, creative industry



참고문헌

구문모. 2005.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 17, 223~250.

김학희. 2007.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부상: 갤러리 호황과 서울시 도심 재활성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0, 144~162.

박배균. 2005. 『지역정치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간과 사회》, Vol. 25, 10~45.

황은정. 2007. 『창조산업의 분포특성과 프로젝트 조직의 군집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용숙. 2006. 『세계화 시대의 지역경제발전: 클러스터론과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비교연구』. 《경제와사회》, 2006년 봄호, 227~254.

Agnew, J.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 53~80.

Caves. R. 2004. *Creative Industry: Cont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ox, K. and Mair, A. 1988. "Locality and community in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8, 307~325.

Coy, P. 2000. "The Creative Economy". *Businessweek Online*: August 28, 2000.

Christopherson S, 2002. "Project work in context: regulatory change and the new geography of med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4, 2003~2015.

Delaney and Leitner, 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Vol. 16. No. 2, 93~97.

Dreher, C. 2002. "Be Creative, or die". *Salon*. <http://www.salon.com>

Evans, G. L., Foord, J. and Shaw, P. 2006. *Strategies for Creative Spaces. Phase 1 Report*. <http://www.creativelondon.org.uk/>

Fainstein, S. 2002.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Urban Restructuring" in Fainstein, S. and Campbell, S(eds.), *Readings in Urban Theory*. Blackwell. 110~123.

Flew, T. 2005. "Creative Cities and Creative Clusters". presented at *Creative Articulations: Creative Research Network Workshop*. Brisbane, Australia.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이길태 옮김. 2002.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_\_\_\_\_. 2005a.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_\_\_\_\_. 2005b.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HarperBusiness

Florida, R. and Gates, G. 2003. "Technology and Tolerance: The Importance of Diversity

- to High-Technology Growth”. *Research in Urban Policy*, Vol. 9, 199~219
- Gertler M. 1997, “The Invention of Regional culture” in Lee, R. and Wills, J. (eds), *Geographies of Economies*. Arnold. 53~64.
- Gibson, C. & Klocker, N. 2004. “Academic publishing as ‘creative’ industry, and recent discourses of ‘creative economies’: some critical reflections”. *Area*. Vol. 36 No. 4, 423~434.
- \_\_\_\_\_. 2005. “the ‘Cultural Turn’ in Australia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Discourse: Neoliberalising Creativity?”. *Geographical Research*, Vol. 43. no.1, 93~102.
- Hartley, J. (ed), 2005. *Creative Industries*. Blackwell
- Howitt, R. 1998. “Scale as relation: musical metaphors of geographical”. *Area* Vol. 30(1), 49~58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zushi, H. and Aoyama, Y. 2006. “Industry evolution and cross-sectoral skill transf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ideo game industry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8, 1843~1861.
- Jonas, A. 1994. “The Scale Politics of Spati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12(3), 257~264.
- Jones, P. and Wilks-Heeg, S. 2004. “Capitalising culture: Liverpool 2008”, *Local Economy*. Vol. 19, 341~360.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 Leo, P. & Lee, T. 2004. “The New Singapore: Mediating Culture and Creativity”.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Vol. 18, No.2 June 2004. 205~218.
- Lovering, J. 1999. “Theory led by policy: the inadequacies of the ‘New Regio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3, 379~395.
- Lucas, R. 1986.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 Jacobs, D. et al (eds), 1998. *Frontiers of research in economic theory: the Nancy L. Schwartz Memorial Lectures, 1983~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Kinnon, D., Cumber, A. and Chapman, K. 2002. “Learning.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Appraisal of Recent Deba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6, 293~311.
- McCann. 2007. “Inequality and Politics in the Creative City-Region: Questions of Livability and State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1, 188~196.
- Malanga, S. 2004. “The curse of the creative class”. *City Journal*. Vol. 14, 36~45.
- Markusen, A. 1999. “Fuzzy Concepts. Scanty Evidence. Policy Distance: the Case for rigour

- and Policy Relevance in Critical Regional Studies”. *Regional Studies*, Vol. 33, 869~884.
- Massey, D. 1992. “Politics and space/time”. *New Left Review*. Vol. 196, 65~84.
- Michigan Department of Labor & Economic Growth. 2006. “2006 Cool Cities Grants & Planning Program”. <http://www.coolcities.com>
- Miles, S. and Paddison, R. 2005.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Vol. 42, 833~839.
- Oakley, K. 2004. “Not so Cool Britann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7 No.1, 67~77.
- Ottaviano, G. and Peri, G. 2006. “The economic value of cultural diversity: evidence from US cit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6, 9~44.
- Peck, J. 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9, 740~770.
- Purcell, M. and Brown J. C. 2005. “Against the local trap: scale and the study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Vol. 5, 279~297.
- Rantisi, N. M., Leslie, D. and Christopherson, S. 2006. “Placing the creative economy: scale, politics, and the material”.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8, 1789~1797.
- Saris, J. and Brouwer, J. 2005, “Creativity as competitive factor for urban regions” in Verhagen, E. and Franke, S. (eds) *Creativity and the city. How the creative economy is changing the city*. Rotterdam: NAI Publishers. 108~143.
- Sayer, A.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이기홍 옮김. 1999. 『사회과학 방법론』. 한울.
- Scott, A, 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vol.28 No.1, 1~17
- Shea, C. 2004. “The road to riches?”. *The Boston Globe*. Vol. 29, February 1~3
-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 \_\_\_\_\_.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Tickner,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New York: Routledge. 97~119.
- \_\_\_\_\_. 1995. “Remaking scal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prenational and postnational Europe”. in H. Eskelinen and F. Snickars, eds. *Competitive European Peripheries*. Springer. 59~74.
- Solow, R. 1969. *Growth theory: an expo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P. 1982. “A Materialist Framework for Pol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7, 15~34
- Thomas, J. M. and Darnton, J. 2006. “Social Diversity and Development in the

- Metropoli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Vol. 51, 153~168.
- UK DCMS, 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 Wang, J. 2004, “The Global Reach of a New Discourse: How far can ‘Creative Industries’ Travel?”.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7 No. 1, 9~19.
- Webber, M. 2000.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Sheppard, E. & Barnes, T.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Blackwell.

논문접수일: 2008. 05. 12.

게재확정일: 2008. 05. 22.